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21호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별도 조사

교육당국, 고교 '야구부 학폭' 감독 조사 착수

나광현 한국일보 기자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11살 시름 천재 '한국인' 김웬디, 전국체전이 못 담은 큰 꿈

박강수, 이준희 한겨레 기자

아이 옷 억지로 벗긴 관장...

“여전히 영업”... 체육관 관장 수상한 촉감놀이, 그후

권남영 국민일보 기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문제

공공체육시설 '배짱 영업'... “취소 힘들고 환불도 절반만”

김규희 KBS NEWS 기자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력 회복 위한 프로그램 진행

1걸음당 1원씩...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학교별 각양각색 체육 활동 '눈길'

윤정훈 매일신문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신일본스포츠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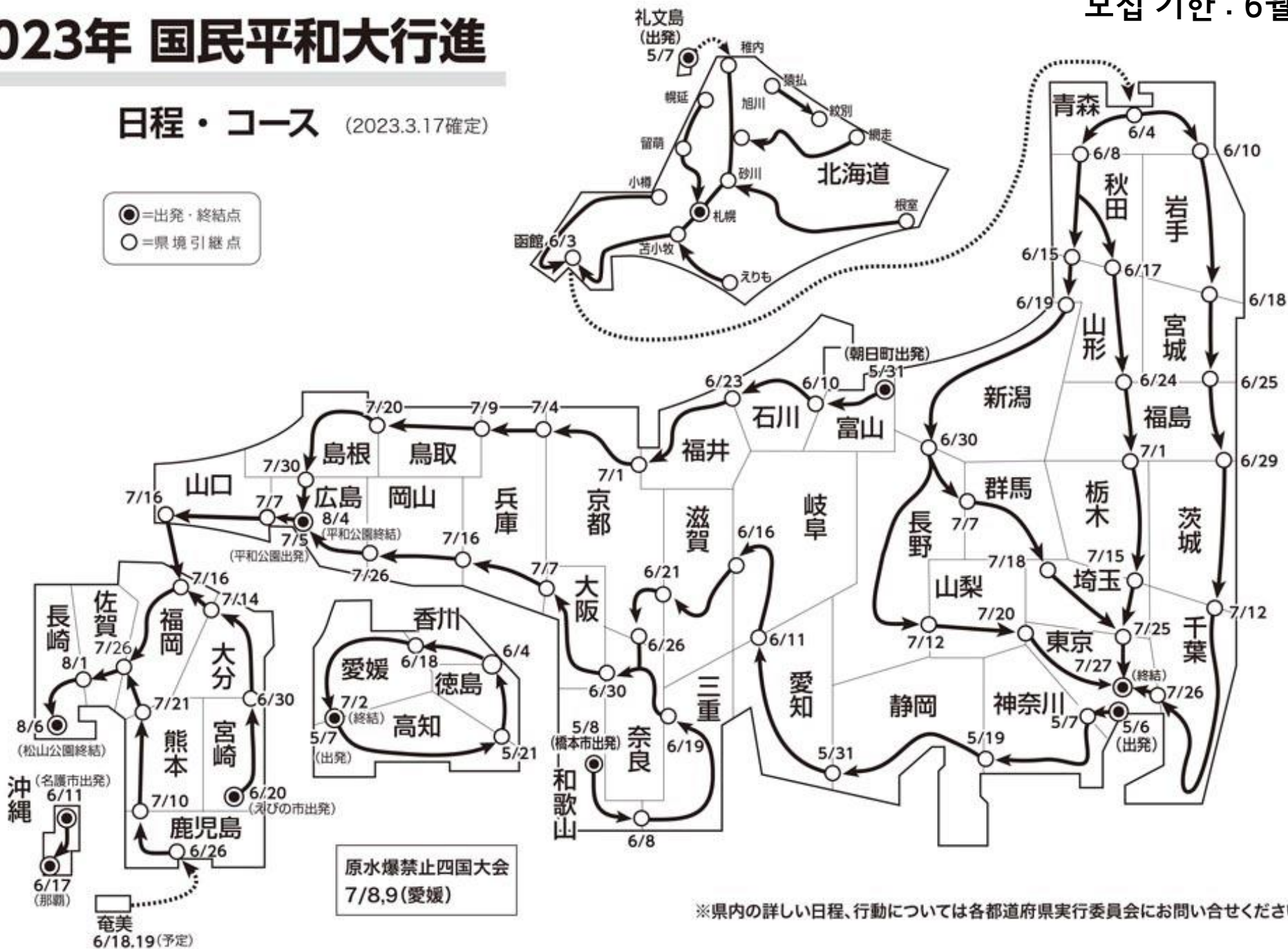
평화행진마라톤 참가자 모집

모집 기한 : 6월 13일까지

2023年 国民平和行進

日程・コース (2023.3.17確定)

●=出発・終結点
○=県境引継点



일정(안)

- 7월 12일(수) 평화 대행진 치바(千葉) 현 코스 출발
- 7월 26일(수) 치바 코스 종점. 출발 날부터 종점 날까지 도중에서 참가
- 7월 26일(수) 평화 대행진 도쿄 코스 출발
- 7월 27일(목) 도쿄 코스 종점.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7월 28일(금), 29(토) 자유시간, 가나가와 현 워킹 교류, 가나가와 현 숙박
- 7월 30일(일) 매달 가와사키 마라톤 참가(구경), 교류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가나가와 현 연맹이 비용 부담

- 7월 31일(월) 신칸센으로 히로시마로 이동
- 8월 1일(화) 평화 대행진 히로시마 코스 도중에서 참가
- 8월 4일(금) 행진 종결 (히로시마 평화 공원), 오후 국제 회의
- *** 여기까지는 평화 행진 실행 위원회가 비용 부담

- 8월 5일(토), 6일(일) 평화 집회 참석 후 귀국
- *** 여기까지는 신일본 스포츠 연맹 전국 연맹이 비용 부담

1. 일본 체재 중의 교통, 숙박, 식사 등 비용은 일본 측에서 부담합니다. (개인적 비용 제외)
2. 평화 행진중 숙박 시설은 각 지방의 평화 행진 실행위원회가 확보합니다.
3. 일본에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에 본인 부담으로 여행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체 일정 중 일부만 참여’도 조율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자유양식 A4 2매 이내)를
sports-cm@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 고교 '야구부 학폭' 감독 조사 착수

교육당국이 최근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 등 지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혜 사실 등이 드러나면 정식 감사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해당 고교에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속 장학사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을 파견했다. 특별장학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관계자 면담 및 서류 실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종의 현장 조사다. 장학지도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되면 감사로 전환된다.

이번 특별장학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감독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가해학생 중 한 명인 A(17)군이 야구계 유력 인사인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이라는 점이 감독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반년 전 알렸지만... 더 큰 폭력 돌아와](#)).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고교와 대학 야구부의 연습경기 도중 감독 B씨가 A군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가 앉아 있는 대학 더그아웃에 들어갔다가 20~30분 뒤 나와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A군이 1학년 때 반년 동안 여러 차례 포지션을 변경(투수→1루수→포수)한 것도 특혜 시비를 불러 당국은 이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곧 열린다. 가·피해자 자체 조사를 끝낸 학교 측은 24일 학폭 전담기구 논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 학폭위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 윤리센터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한겨레 창간기획 - 이주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11살 씨름 천재 '한국인' 김웬디, 전국체전이 못 담은 큰 꿈

김웬디(11)군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2세대다.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의 일상은 학습지 숙제에 쫓기고, 피아노 학원에서 '체르니100'을 배우는 등 여느 또래와 다를 게 없었다. 차이가 있다면 남다른 운동 신경. 2년 전 학교 체육선생님 제안으로 씨름을 시작했고, 입문 두달 만에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2년간 일곱번 대회에 나가 네번 우승했을 정도로 실력이 좋다. 그러나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한다.

씨름은 한국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씨름 꿈나무가 대회 참가 권리마저 빼앗긴 것은, 전국체전 참가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에 온 김웬디군의 부모는 2018년 난민 인정을 받았으나 국적을 획득하진 못했다. 김웬디군도 마찬가지다.

매일 2~3시간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지만, 대회 날에는 홀로 학교에 남아야 한다. 김웬디군은 "괜찮아요. 저는 외국인이니깐요"라고 말한다. 요즘은 축구로 종목을 바꿔볼까 고민 중이다. 그는 "프랑스에 가서 음바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 도르카스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처음 씨름대회에 못 나간다는 걸 알고 아이가 정말 많이 슬퍼했어요. 씨름은 한국에서밖에 못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한국 스포츠계는 아직 김웬디군과 같은 이들에게 인색하다. 이주사회라는 현실은 마주했으나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사이, 이주 청소년들의 꿈은 좌초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들은 태극마크를 달 수도, 직업 스포츠인이 될 수도 없다.

참가 자격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 대한체육회의 중론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질의해 지난달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49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가 나와 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외국인 선수의 참가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안건에 총 32개 단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21곳이 반대, 11곳이 찬성 의견을 냈다. 과반인 65.6%가 참가 자격의 국적 제한을 허무는 데 반대하고 있다.

반대 명분은 △대회 목적에 반함 △국내 선수 역차별 △악용 우려 등이다. 세종시체육회는 "100년 넘게 이어온 전국체전 역사에 비춰볼 때 쉽게 허용할 수 없다"며 "참가를 허용할 경우 각 지역의 무분별한 외국인 영입 경쟁이 벌어져 대회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전통성과 경쟁 생태계를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검도회는 "전국체전 성적은 학생 선수는 상급 학교 진학, 실업팀 선수는 재계약 연봉에 반영된다"고 썼다. '국내 선수'들이 받을 입시·생계의 타격에 대한 우려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합이 곧 한국적인 것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도 선수도 줄어드는 현실을 말한다. 외국인 선수 참가 허용 입장을 밝힌 11개 단체 대부분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선수 수급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한씨름협회의 경우 "일정 기간 대한민국 정규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고,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는 이미 "종목별 전국대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이주 시대에 제도권 체육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준다. 영국 러프버러대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연구하는 탁민혁 교수는 "이주 아동이 좋은 운동 신경을 앞세워 특정 종목을 전부 장악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마나 과학에 근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초기에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수많은 재목 중 하나로 정착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쟁적 선수 육성이나 스카우트 문제는 경계해야 하지만, 그 역시 이주 아동들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 장 계속



탁 교수는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합이 곧 한국적인 것이지, 한국적인 것을 따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이와 맞지 않는 이를 가르는 건 폐쇄적인 태도다. 전국체전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전통으로 이어지려면 오늘날 실제 한국인들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논의가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둔 포용 요구’와 ‘자기 이해를 고수하는 보수적 체육계’의 대립 구도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국가와 스포츠의 경계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스포츠 산업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인식 수준만 탓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스포츠계 내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줄어드는 인구와 엘리트 풀 수축으로 선수 수급이 다급한 지역이나 종목은 오히려 생존을 위해 개방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서구의 ‘다문화’도 인권 인식이 선행돼 열린 세상이라기보다는 자본의 필요 때문에 먼저 다양화된 세상을 살아가고자 성립된 윤리에 가깝지 않다.”
개방 압력은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서 비롯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야구·축구계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축구 선수 풍기 사무엘(22)은 2007년 가족을 따라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2021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 아직 귀화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무엘은 프로 세계에서 ‘외국인 선수’일 뿐이었다. 어린 유망주가 프로 구단의 한정된 외국인 선수 자리를 꿰차기는 쉽지 않았고, 사무엘은 결국 팀을 떠났다. K3리그의 파주시민축구단을 거쳐 현재는 소속 없이 개인 운동 중이다.

사무엘의 사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홈그론(Homegrown, 토착의)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홈그론 제도는 구단 엔트리 25명 중 8명을 ‘21살이 되기 전에 잉글랜드나 웨일스의 구단에서 3년 이상 몸담은 경력이 있는 선수’로 채우도록 한 의무 규정이다. 자국 선수 보호 취지가 목적인데, 위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리그 육성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아스널의 세스크 파브레가스(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폴 포그바(프랑스)가 모두 홈그론 선수였다.

한국도 변화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외국인 선수 관련 규약에 새 조항을 만들어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 재학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는 국내 선수로 취급하도록 했다. 일종의 ‘KBO판 홈그론’이다. 한국야구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국적 차별, 취업 차별에 대해서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규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통한 이주민 선수들의 유입이야말로) 앞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축구 K리그는 기존 제도들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우리도 2년 전부터 논의를 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프로팀 산하 유스클럽 소속으로 있던 선수를 우대하는 우선지명제도라는 게 있는데, 같은 조건으로 육성된 외국인 선수는 외국인 쿼터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 시즌부터 외국인 쿼터 제한이 최대 6명까지 늘어나면서 기존 ‘국내 선수’ 출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일단 논의를 중지했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영업”... 체육관 관장 수상한 촉감놀이, 그후

대구의 한 체육관 관장이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아이의 아버지가 원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가해자인 관장이 향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5일 온라인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복싱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가 글을 올린 날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복싱장 관장 20대 남성 B씨가 지난 1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남아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희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2021년 9월부터 집 근처 복싱장에 운동하러 다녔다”며 “열심히 하더니 올해 3월 운동을 하러 가기 싫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아이가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운동 중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아이에게 ‘바지만 벗겼어?’라고 물어보니 ‘팬티까지 내려갔어’라는 말을 듣게 됐다”면서 “아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해서 관장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니 얼버무리며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통화 이후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장님이 한 행동은 아동성추행이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체육관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다. 거부하면 경찰 입회하에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B씨에게 받은 CCTV 영상에는 B씨가 체육관 구석에서 몸을 피하는 아이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텼지만, 관장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아이의 진술로 관장이 “누워”라고 말한 사실까지 확인한 A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충격적인 진술이 더 나왔다. 아이는 관장이 자신의 바지를 벗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촉감놀이를 하자’며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마스크로 아이 눈을 가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더라”면서 “해당 복싱장이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여서 (아이는) 해가 진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장이 본인과 가족을 찾아와 보복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씨의) 구속 사실을 전달받은 뒤 아이에게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 줬지만 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체육관 건물의 간판을 먼저 살핀다. 꺼지지 않은 간판을 확인하고 ‘엄마 제발 저 간판 좀 꺼줘’라고 한 적도 있다”며 “아이가 받은 상처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특히 “키즈 복싱으로 기관을 홍보했기에 (해당 복싱장이)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관장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관은 아동 관련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 ‘배짱 영업’... “취소 힘들고 환불도 절반만”

[앵커]

인기가 많은 웬만한 공공체육시설들은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정작 주민들을 상대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둘씩 짝지어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이용하려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1회 이용료는 3만 원 안팎.

테니스장 이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예약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으면서, 변경이나 취소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위약금까지 물게 해 보름 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주형/테니스장 이용 시민 :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취소 일주일 전, 5일 전, 3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다르게) 주고..."]

사용일 닷새 전까지는 예약금의 90에서 100퍼센트를 환불하도록 정한 다른 시군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로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하라는 조례 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체육산업과 관계자/음성변조 :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쯤에 이제 그 부분은 수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까지 반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전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이 예약 취소와 변경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이른 시일 안에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자료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6342&ref=A>

1걸음당 1원씩...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학교별 각양각색 체육 활동 '눈길'

일상 곳곳에 자리한 코로나19의 깊은 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의 학생건강체력평가 저체력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99%에서 2020년 11.47%로 대폭 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단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6개 세부사업을 구상해 총 373교를 선정하여 확대·운영하고 있다. 대구 지역 초중고 80%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들이 어떤 특성을 살려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는지 세 학교를 살펴봤다.

◆맨발걷기로 시작하는 상쾌한 하루, 대구동일초

대구 수성구 동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나래(가명) 양은 맨발걷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등교와 동시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맨발로 운동장을 걷는다. 걷다 보면 운동장은 어느새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가득 찬다. 2교시 후 중간체육 시간에는 맨발로 운동장을 5바퀴 걸은 후 맨발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흠놀이를 한다. 방과 후에도 전통놀이터에 들렀다가 하교한다. 운동장과 맨발놀이터는 나래에게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주는 '힐링장소'다.

동일초는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좁아 충분한 신체활동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학교구성원들은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1교시 수업 전 등교와 동시에 걷기 운동을 활성화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교우관계도 개선하는 맨발걷기 활동을 기획했다.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은 370만원의 예산으로 모래운동장을 정비하고 걷기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맨발걷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걷기 운동을 가정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50일, 100일 단위로 선물과 상장 수여도 계획하고 있다.

맨발걷기에 참여한 동일초 3학년 학생은 "아침에 학교 와서 맨발걷기를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걷는 것도 재밌다. 앞으로도 매일 매일 맨발걷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공간 혁신으로 어디서나 운동! 경북여고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여자고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여느 학교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급식을 일찍 마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체육관으로 몰려든다. 체육관에는 배드민턴 코트, 탁구대, 승마기, 러닝머신, 다트, 필라테스 소도구 등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일찍 도착한 학생들은 인기 있는 운동 기구를 선점하고 늦게 도착한 친구들은 비어 있는 다른 기구를 이용하거나 조용히 순서를 기다린다. 교사들도 점심을 마친 뒤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체육 선생님들은 학생 및 교사가 안전하게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곁에서 여러 도움을 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의 명문 경북여고는 여학생들만으로 이뤄진 학교이다. 남학생들보다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여학생들의 체력을 기르고 좋은 운동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경북여고는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올해 4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다음 장 계속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학교 체육관 내부와 외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했다. 현재 점심시간에는 매일 50명 이상의 학생이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2학년 한 여학생은 "공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다이어트도 되는 것 같아서 좋다. 무엇보다 5교시 수업에 졸음이 쏟아지곤 했는데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 졸음이 덜 와서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글로벌 리더를 향한 첫걸음은 아침 운동으로! 대구국제고

대구 북구에 있는 국제고는 전교생이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 시교육청으로부터 37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아침에 걷는 데이', '상쾌한 아침, 건강한 하루'와 학생 자치 기구에서 운영하는 '런치리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침에 걷는 데이'는 전교생이 참여하며 걷기 앱 '빅워크'로 걸음 수를 누적해 기록하는 활동이다. 빅워크 앱은 단순히 활동량을 기록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1걸음당 1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하루 최대 1만 걸음, 즉 1만원씩 기부를 할 수 있다. 포인트를 모은 뒤 자신이 원하는 캠페인에 걸음 기부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교육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상쾌한 아침, 건강한 하루'는 오전 7시 아침 식사 후 7시 30분부터 1교시 시작 10분 전인 8시 2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요일별로 교내 체육관, 헬스장, 본관동 대강당에서 이뤄지는 요가, 헬스,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학년과 2학년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3학년 중 일부 희망 학생들도 함께 하는데 반응이 좋다.

특히 수요일은 2학년과 3학년 희망자를, 목요일은 1학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사가 더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가르쳐준다.

더불어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리그'는 교사들이 관여하지 않고 학생자치회 산하 건강체육부 소속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심판도 학생들이 직접 맡고 있다. 매 학기 2주간 이뤄지는데, 이번 1학기엔 4월 셋째주, 넷째주에 걸쳐 반별 대항으로 여학생 피구 경기, 남학생 축구 경기, 혼성으로 배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졌다. 현재 건강체육부 학생들은 9월 중 실시될 2학기 런치리그도 열심히 기획하고 있다.

이영길 대구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이 체력, 사회성, 인내심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주간 스포츠 소식

전남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5968?ref=naver>

경남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워크숍 개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524010006916>

제주도 스포츠 꿈나무 449명 소년체전 '출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21638048171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호날두 이어 메시 데려오려는 사우디, '스포츠워싱'에만 10년간 2조 원 지출

<https://www.etoday.co.kr/news/view/2251668>

경기도, 7월31일까지 '인권 대상·작품 공모'...9월 발표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14726?ref=naver>

경남체육회, 스포츠클럽 역량 강화 워크숍 열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04764>

광주수영연맹, 경영 3급 심판강습회·보수교육 개최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502>

대한검도회,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검도경기 교육문화페스티벌 개최

<http://www.stoo.com/article.php?aid=87332778422>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선정...6월 12일 마감

<https://www.mbn.co.kr/news/sports/493341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